

2015년도 사우디 정부예산 주요 내용

2015. 1. 20

사우디아라비아 주재원

□ 사우디 정부는 지난 2014년 12월말, 총지출 2,293억 달러, 총수입 1,907억 달러로 386억 달러의 적자예산으로 편성된, 2015년 정부 예산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0.6% 증가한 수준임

- 신규·기존 프로젝트 부문 493억 달러(전년대비 168억 달러 감소), 교육 부문 579억 달러, 보건·사회복지 부문 427억 달러(전년대비 139억 달러 증가), 지방자치 사업 부문 107억 달러, 인프라·교통 부문 168억 달러, 수자원·산업·농업 부문 160억 달러 등으로 예산이 배정됨.

□ 교육 부문

- 총 579억 달러 책정, 전체 예산의 약 25%를 차지하며, 2014년 대비 3.4% 증가한 금액임.
- 164개 신규 프로젝트에 37억 달러, 기진행중인 프로젝트에 18억 달러가 투입되며, 전국에서 건설중인 프로젝트 관련 이월 예산 747억 달러도 지속적으로 투입될 예정임
- 일반교육부문에서 500개 기존 학교건물과 11개 스포츠센터 시설개선에 1.1억 달러가, 고등교육부문에서 3개 대학교 신설 포함 다수의 대학교 건설 및 시설개선에 32.8억 달러가 배정됨
- 20만 7천명의 해외 유학생(정부의 지원 부양가족 포함)을 대상으로 한 국비유학지원 예산은 60억 달러에 달함.

□ 보건 및 사회복지 부문

- 전년 수준으로 편성된 타 부문과 달리, 전년도의 288억 달러 대비 48.3% 증가한 총 427억 달러로 책정됨
- 기초 진료센터 설립을 포함, 3개 신규 병원, 3개 혈액은행 연구소, 11개 의료센터, 10개 종합클리닉을 건설할 예정임.
* 현재 24,000개 병상 규모의 병원 117개와 14,500개 병상 규모의 8개 의료도시를 건설 중임.
- 사회복지 부문에는 16개 스포츠 경기장, 장애인용 5개 사회복지 시설, 노동사무소 건립 등과 장애인 지원 및 빈곤퇴치 프로그램 등으로 80억 달러를 배정함.

□ 지방자치 사업

- 총 107억 달러 책정, 전년 대비 2.9% 증가한 금액임.
- 도시 간 연계도로, 교량, 배수 및 관리시스템 구축에 투입되며, 홍수방지시설 건설예산 80억 달러를 포함한 384억 달러 규모의 이월예산도 지속적으로 투입될 예정임.

□ 인프라, 교통 및 운송

- 총 168억 달러 책정, 전년 대비 5.6% 감소한 금액임.
- 2,000km 도로 신설, 기존 항구 현대화 및 정박시설 증축, 주베일·안부·라스 알 카이르 산업지구의 인프라 프로젝트, 국내 및 국제선 공항과 철도 개보수 등에 89억 달러가 투입되며, 기 건설중인 프로젝트의 이월예산 307억 달러도 지속적으로 투입될 예정임

□ 수자원, 농업, 산업, 기타 자원

- 총 160억 달러 배정, 전년 대비 1.8% 감소한 금액임.
- 댐 건설, 담수화, 대수층 개발(지하수), 수처리 및 관개 네트워크 개선 등에 총 61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임.
- 아울러 신규 프로젝트는 인프라 구축 및 필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산업도시에 착수될 예정이며, 곡물 저장소 신축 및 증축에도 투입됨.

□ 특별 금융지원 기관 및 정부 금융 프로그램

- 일자리 확대 및 미래성장 촉진을 위해 부동산 개발펀드, 사우디산업개발펀드(SIDF), 저축은행, 농업개발펀드, 공공투자펀드, 정부대출 프로그램 등으로 197억 달러 이상을 지출할 예정이며, 이들 금융기관들을 통해 현재까지 지원된 총 금액은 약 1,565억 달러에 달함.

□ 당초 현지 일부 전문가들이 최근 큰 폭의 국제유가 하락 추세를 감안 전년대비 축소예산 편성을 전망하였으나, 사우디 정부는 2014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편성하되, 보건복지부문의 수요 증가를 반영하는 대신 신규 프로젝트 규모를 다소 축소조정한 것으로 보임.

□ 한편, 2015년 예산 발표와 관련, 현지 전문가들은 사우디 정부 예산편성 국제유가수준을 배럴당 55달러 내지 63달러로 추정하고 있음.